

2016 Winter
Vol. 91

희망미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 해를 보내며



김 학 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말연시가 되면 내년도 달력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인가를 생각하는 요즈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리고, 빨간 사랑의 열매가 방송에 보이면 나눔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 해가 가기 전 기부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의미 있는 성취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서울나눔소아암 센터가 건축되어 11월 25일에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좀 더 나은 공간과 환경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치료가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질환들이 지금은 치료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건강을 되찾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멋있게 성장하는 소아암 완치자들을 많이 만난 것도 올해 있었던 기쁨과 감사한 일 중의 큰 부분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니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웬지 혹독할 올겨울,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따뜻한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눔과 함께 나누는 기업 현대리바트

임부택 차장
현대리바트 전략운영팀

나눔의 의미

현대리바트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업'이라는 모토아래, 사회의 공기로서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큰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만큼 뜻 깊은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해 왔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직원들 개개인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알고, 보람을 느끼면서 기부를 하였고, 회사는 매칭그랜트를 통해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쉽터를 찾아 함께 어울리면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보람과 에너지를 느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하면서, 회사와 직원들이 얻은 나눔의 기쁨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봄, 신촌 소아암쉽터에 주방가구를 후원하면서, 낯은 외벽을 새단장하는 벽화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팀 직원을 포함해 8명

정도가 참여하기로 하고 찾아가니, 약간 쌀쌀한 날씨에 생각보다 넓은 담장에 언제 완성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천천히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한 페인트로 하나 둘 색을 입혀 나갔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는 느낌과 그림을 보면서 환하게 웃을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지라 어설프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며 또 하고 싶다는 말들을 나눴던 즐거운 기억입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희망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는 가족의 마음도 편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수록,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을 수 있다는 마음과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대리바트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 속 깊이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따뜻한 희망은 찾아 올 것입니다.

* 현대리바트는 2009년부터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희원아 넌 최고야! 사랑해!

두근 두근. 혈액검사를 하고 결과를 적어주는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따라 심장이 떨립니다. 외래를 갈 때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그 숫자는 우리의 가슴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합니다.



2015년 8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날.

“엄마, 배고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냉장고 문을 열더니 김치통을 뒤적이며 김치를 먹고, 맵다며 양파즙을 물삼아 별걱별걱 들이킵니다. 편식 한 번 없고, 양파즙, 홍삼즙 등 몸에 좋은 건 더 잘 먹는 회원이는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 댄스를 배우며 아이돌의 꿈을 키웁니다. 저녁엔 아빠랑 같이 산책 겸 조깅으로 공원에 가는데 “아빠보다 늦게 걷는 사람은 P.T 30개 추가다.” 아빠는 으름장을 놓곤 합니다. 아빠랑 언니에게 질세라 통통한 몸으로 쫓겨리며 잘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던 어느 아이들보다도 밝고 건강했던 회원이.

그런데 여름이라 그런지 잘 먹던 아이가 부쩍 식욕이 없고, 힘도 없고, 미열도 있어서 영양제라도 맞히고 싶은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열에 대한 다른 이상 소견은 없으나 핏기 없는 입술이 마음에 걸린다면 혈액검사를 해보았습니다. 해열제 쓰고 영양제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왜 혈액검사를... 다급히 부르는 의사 선생님은 큰 병원으로 당장 가야 된다고 소견서와 함께 위급한 상황이라며 구급차까지 불러 큰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병원은 암병동인데, 왜 우리 회원이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건지.’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 사실을 회원이에게 말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눈을 살피더니 “엄마, 나 무슨 큰 병 걸린 거야?”, “엄마 밖에서 울지 말고 전 괜찮으니깐 제 앞에서 우세요.” 그 말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난생 처음 구급차를 타고 화순으로 달려던 그 날, 비가 오는 도로를 과속에 중앙선 침범까지 하는 구급차를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불안함에 제 손만 꼭 잡았던 회원이. 가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 뿐,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의료기구들이 회원이 몸에 달리고 골수검사가 진행됩니다.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검사 시 기억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약을 써야 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들려오는 건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가 많아 이 아이가 아픈 것이니, 제발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저를 대신 벌 하소서.’ 회원이의 아픔을 대신 해 줄 수 없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더욱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이때부터 ‘암’이라는 이 코딱지 외계

인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회원이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이때는 회원이에게 엄마의 표정이, 엄마의 목소리가, 엄마의 손길이 전부였던 시간 들이었습니다. 낮가림이 있던 회원이는 엄마 말고는 그 누구와도 대화가 없더니 병원학교를 다닌 후로 제법 말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힘든 항암치료, 바뀐 환경,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불안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회원이의 마음을 두드려 열어주신 병원학교 선생님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원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병원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항암치료 중 첫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관해요법. 일주일 항암치료 후 다시 받은 골수검사. 제법 잘 치료가 되었기를 바랬지만, 바람과 달리 줄다리기에 조금 밀렸습니다. 코딱지 외계인이 친구들을 더 데려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표준형 치료에서 고위험군 치료로 스케줄이 바뀌어 더 독한 항암제를 사용하고 입원집중치료기간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병명을 몰랐을 때를 생각해봐, 병명을 알고 이제 치료할 약도 있고, 치료만 잘하면 되는데... 걱정 말고 힘내자.'라는 남편의 말에 힘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의 입원집중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의식을 잃어 쓰러지기도 했고, 폐혈증에 심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항암치료인데도 중심정맥관을 하지 않고 7~8회만에 찾은 혈관이 부어 하루에 세 번 정도 주사를 놓기도 하고, 제 딸이지만 독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중심정맥관 소독을 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놀랐는지 절대 중심정맥관은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텨 손과 팔에는 영광의 명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있습니다. 혈관 찾는 게 숙제였던 73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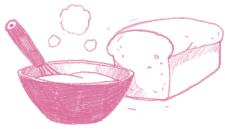
1년이라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회원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식상해 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낙엽을 밟으며 길을 걷고,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며,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재단에서 마련해준 에버랜드 놀이공원 여행. 1년의 힘든 병원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 오랜만에 가져본 즐거운 행복이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회원이는 에버랜드로 이사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꿈인 회원이에게 정말 반가운 손님, 아이돌 선배인 '고아라' 언니도 만나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선물을 받았습시다.

이젠 머리카락도 제법 자랐고, 학교도 다닙니다. 1년 동안 학교에 단 한 번 가보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학교 속으로 Go Go!'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이의 병과 상태를 알게 된 친구들이 놀리고 멀리하기보다는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요즘 회원이는 그 친구들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지금껏 잘 견뎌준 회원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원아 넌 최고야! 사랑해!' 그리고 언니로서 든든한 자리를 지켜줬던 큰딸 '솔희야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은 제 맘 알겠죠.

땅만 보고 다니는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넘어져 버둥거리고만 있었을 저희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회원이는 현재 유지치료 중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울함을 극복!



성소연 (1996년생)
2005년 2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07년 8월 치료 종결
현재 경북대학교 식품외식산업학과 재학 중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을 받고 약 2년 반의 치료과정을 거친 후 치료를 마친 21살 성소연이라고 합니다. 완치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투병했을 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콧잔등이 시큰시큰해져요. 사실 저는 투병 중에 때도 많이 쓰고, 부모님과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워서 지금 투병 중인 다른 여러 환우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글을 쓰려니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묘한 느낌이 드네요. 많이 모자란 글이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백혈병 투병 시간은 단순히 치료를 반복하는 시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주고, 또 제 진로를 정해준 뜻 깊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긴 치료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독한 약물치료? 아님 커다란 주사바늘? 식후에 먹는 어마어마한 약들? 전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병실에서의 심심함과 무묘한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리기 전, 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게 병원이라는 곳은 너무 재미없고 답답한 공간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지금 수업을 듣고, 다 같이 급식을 먹고, 놀이터에서 뛰어 놀 시간이었는데 저는 병실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멍멍한 병원 밥을 먹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놀고 싶은데, 어째서 그렇게 사소한 일들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하는 원망 섞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나게 되었고, 나중엔 우울증과 짜증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왕창 하면 되잖아!’ 그게



시작이었죠. 보조책상을 꺼내고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반복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기와 그림 그리기입니다. 사실 병실에서의 일상은 늘 똑같지만, 매일 새로운 삶처럼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하루를 보낼 때도 저 스스로 ‘어제랑은 좀 다르게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쓸 것이 없던 날에는 그날 먹었던 병원 식사를, 그리고 맛을 평가하기도 했어요. 식단은 매일 다르게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요리책 읽기입니다. ‘초등학생이 요리책?’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았는데요, 사실 요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요리책에 있는 음식사진을 보는 낙이 더 컸어요. 먹지도 못하는 음식, 보기도 양껏 보지는 마음이었죠. 하하. 그러다 요리책에 있는 음식을 그려보기도 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점점 요리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저는 무료하고 지루했던 병원생활을 좀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고, 또한 스스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시간 덕에 요리와 음식은 제게 또 하나의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투병기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아픈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쫓아 지금은 식품외식산업학과에 재학 중이고 푸드마케팅 분야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음식 평론가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 중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꿈꾸는 모든 것들에 도전해 보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팠던 시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노트에 줄줄 적어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저는 가끔 ‘만약 내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겠죠? 백혈병 치료는 분명 힘든 과정이었지만 고난이나 역경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지를 키워 준,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열심히 병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 비록 지금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강하고, 멋지고 또 특별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환우들이 좁은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와 반짝반짝 빛나는 날개를 펼쳐 높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한사랑의집에서는

떡 나와라 뚝딱

동그란 보름달이 뜨는 추석의 맞이해 9월 9일 오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병동을 방문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맞춤 떡과 청사초롱만들기 세트를, 서울·신촌 우체국 한사랑의 집 이용 가족에게는 한우소불고기를 선물해드렸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인사동에 위치한 떡박물관에서 서울, 경인지역의 가족들과 박물관 관람 후 단호박 떡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추석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떡케이크를 완성한 아이들은 떡박물관 체험행사 수료증도 받고, 직접 만든 맛있는 떡을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경기고등학교동창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쉼터가 새 단장 하는 날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던 어느 날, 서울·신촌 우체국 한사랑의 집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대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여름 함께했던 신세계디에프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쉼터 청소뿐만 아니라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판을 새로이 교체하고, 쉼터 가족들이 혹여나 다칠까 모서리 보호대도 꼼꼼히 설치하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쉼터 가족들에게도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에서 아이들이 빨리 건강을 찾기를 바래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저금통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상자를 접고, 눈사람을 붙여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저금통을 가족, 선생님들에게 자랑하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 저금처럼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지원 결정
환아

2016. 9.~ 2016. 11.

이식비

고려은단

강○덴(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김○솔(급성골수성백혈병) 1,000만원
김○준(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송○찬(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신○준(수모세포종) 1,000만원
윤○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솔(급성골수성백혈병) 1,000만원
김○희(재생불량빈혈) 500만원
도○주(급성골수성백혈병) 1,000만원
서○진(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이○재(크라베 병) 1,500만원
조○비(악성림프종) 1,000만원

삼성전자복지재단

윤○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 1,500만원

송중기 공식팬클럽 키엘

정○승(악성림프종) 5,292,287원

스타포인트

김○희(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애터미

변○현(급성골수성백혈병) 1,000만원

유라코퍼레이션

이○재(크라베 병) 500만원

장수정

전○준(혈구탐식세포조직구증식증) 1,0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도○주(급성골수성백혈병) 7,203,680원

차카게살자기금(이승환&팬)

고○원(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조○비(악성림프종) 1,000만원

BJ윤마

고○원(재생불량빈혈) 500만원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진(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정○림(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정○승(악성림프종) 1,000만원

재합치로비

구구단 김세정

김○호(버킷림프종) 1,996,828원

김창록

원○희(생식세포종양) 200만원

마마무 화사

김○호(버킷림프종) 100만원

문금융 후원자

이○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 1,420,024원

방탄소년단, 인피니트, 트와이스, 비스트, 에이핑크

노○미(수모세포종) 300만원
원○희(생식세포종양) 100만원

배우 유아인의 팬

김○우(배아세포종) 100만원

이준환

정○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912,000원

익명 후원자

공○우(수모세포종) 500만원
박○영(황문근육종) 500만원
임○진(늑막폐아세포종) 600만원
정○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3,806,990원
정○동(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차카게살자기금(이승환&팬)

김○우(배아세포종) 4,274,596원
윤○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0만원
이○호(황문근육종) 500만원
채○윤(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치료비

김창록

장○균(급성전골수성백혈병) 800만원

김창희

박○원(수모세포종) 2,929,75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원(재생불량빈혈) 2,868,360원
권○연(골수이형성증) 800만원
김○배(골육종) 350만원
김○훈(7세포 림프종) 6,898,210원
김○진(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박○환(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유○재(수모세포종) 300만원
이○산(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이○은(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이○석(혈구탐식세포조직구증) 300만원
이○진(혈구탐식세포조직구증) 500만원
이○훈(황문근육종) 500만원
이○호(급성골수성백혈병) 2,583,240원
정○훈(림프모구림프종) 5,732,968원
정○승(악성림프종) 4,959,324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양○유(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0만원

램리서치코리아

정○승(악성림프종) 1,940,676원

박지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호(급성골수성백혈병) 5,416,760원

배우 송중기

강○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구○운(망막모세포종) 600만원
송○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이○은(신경모세포종) 500만원
이○우(신경모세포종) 800만원
임○진(성호환상백혈병) 800만원
윤○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장○후(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정○별(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정○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400만원
 최○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태○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배우 유아인의 팬
 김○이(골육종) 30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1,500만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노○문(골육종) 800만원
 이○석(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500만원

야놀자
 윤○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정○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이수진(야놀자 대표)
 이○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고○원(재생불량빈혈) 4,031,640원
 양○유(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이은희
 원○희(생식세포종양) 300만원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정○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400만원

차카게살자기금(이승환&팬)
 김○수(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온○윤(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임○근(급성골수성백혈병) 300만원

최인선
 임○근(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포스코에너지
 최○연(중증재생불량빈혈) 800만원

한마음혈액원
 원○하(신경모세포종) 200만원
 최○연(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한전KDN
 정○환(급성골수성백혈병) 300만원

홍명보장학재단
 정○훈(림프모구림프종) 2,267,032원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훈(T세포 림프종) 1,101,790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배우 유아인의 팬
 박○원(수모세포종) 100만원

사이니 키
 오○인(재생불량빈혈) 100만원

숨사탕콘서트
 정○엽(급성골수성백혈병) 1,253,000원

신한카드 부산CRM센터 제니엘
 한○재(급성림프모구백혈병) 1,115,000원

씨게이트코리아
 김○항(급성림프모구백혈병) 993,350원

야놀자
 원○희(생식세포종양) 100만원
 최○연(중증재생불량빈혈) 100만원

엑소체
 신○하(림프모구림프종) 1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강○슬(뇌종양) 100만원
 김○배(골육종) 100만원
 서○진(재생불량빈혈) 100만원
 최○희(망막모세포종) 100만원

이준환
 오○호(골수이형성증) 100만원
 홍○혁(황문근육종) 100만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백○현(급성전골수성백혈병) 100만원
 이○산(재생불량빈혈) 100만원

해피빈(정준영)
 권○연(골수이형성증) 100만원

해피빈, KT&G
 진○호(급성골수성백혈병) 99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김○성(급성림프모구백혈병)
 송○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염○민(수모세포종)
 이○윤(시신경교종)

양진의료재단
 이○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익명후원자
 김○린(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정(유양육종)

한국남동발전
 윤○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한국교역
 서○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
 조○준(망막모세포종)

KDB생명
 최○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한○교(황문근육종)

가발

하이모
 김○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연(급성골수성백혈병)
 박○화(수모세포종)
 박○경(뇌종양)
 정○영(수모세포종)
 장○원(급성골수성백혈병)
 최○현(급성골수성백혈병)
 홍○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SGI서울보증
 공○연(뇌종양)
 김○하(급성림프모구백혈병)
 남○정(급성림프모구백혈병)
 윤○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정○욱(호지킨림프종)
 정○현(신경모세포종)

>>> KCLF

신규
후원자
소식

2016. 9.~2016. 11.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자신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명지 구자호 권영웅 김계연 김대현 김동근 김상도 김선애 김성숙 김세현 김수경 김수하 김양중 김영태 김예지 김용건 김용주 김유란 김은지 김진균 김채연 김하나 김하나(2) 김형정 김희정 나용재 남승우 맹우주 맹지우 문병옥 문서현 박경수 박미정 박소정 박용태 박충호 박태희 박하얀 박효숙 반경민 배정규 성경희 성용현 신동순 오명연 유미영 유민승 윤아라 윤한백 이미경 이 민 이선재 이소영 이승찬 이애영 이은서 이은혜 이인숙 이재문 이진미 이진석 이화진 이효승 임영목 장윤정 장은희 장준우 전우열 전지운 전혜성 정유진 정 행 정호선 조미정 조선혜 조웅철 조은영 지자영 차효찬 최귀영 최지희 최효정 추현지 하정원 한경희 한인영 홍민채 황은경 강진고등학교 포춘브릿지스탠다드 사공문혜 야사노창동점 크라운힐 파티더힐

일시후원

강영순 강은선 강지민 고미미 고승우 공효덕 권윤애 김건도 김남경 김봉채 김상준 김서울 김성민 김성수 김수빈 김시현 김영주 김윤하 김은열 김은희 김재연 김정민 김지우 나한별 맹이루 문 숙 박병남 박수현 박영아 박윤우 박진영 변경애 서인숙 서희승 성시아 성주완 신두진 신혜원 심하영 안선경 양수민 오수현 오재욱 원아름 윤의철 윤정선 윤진영 이기원 이상민 이상운 이승현 이장원 이재용 이지윤 이지호 이현주 전미설 전미희 정혜란 최영재 최이슬 최 훈 한민혜 황재성 황지영 금연환향 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정원이와친구들 2016년제4기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신규자교육2반6조일동

후원물품

신영 야외 테이블세트 애터미 생활용품 이연섭가족 사과 장미숙 쌀 정지환가족 음료수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헌혈증 (장)

강기주(7) 강민지(1) 권성미(1) 권세혁(1) 김경모(30) 김미현(24) 김부현(27) 김상훈(50) 김석란(13) 김영민(26) 김영준(2) 김용목(30) 김원진(5) 김은정(1) 김종용(1) 김준하(50) 김희수(10) 남성현(35) 박건웅(13) 박경록(10) 박경수(50) 박수철(17) 박종현(18) 박진우(19) 박소희(50) 백민재(8) 서혜승(113) 손세옥(143) 신가영(4) 신범철(55) 신소연(6) 심인경(50) 안영주(57) 안은지(8) 안필현(50) 안형준(3) 연승모(6) 오동필(24) 옥문영(7) 우아란(5) 유승연(3) 유희진(8) 윤신아(7)윤주용(3) 윤지현(37) 이강분(2) 이규하(2) 이기섭(30) 이동진(12) 이민미(3) 이종철(10) 이준호(11) 이철원(54) 이현아(10) 이흥종(50) 임명환(50) 장숙희(4) 장재윤(20) 전미강(3) 정수미(37)정수환(5) 정승배(28) 정승호(15) 정혜미(2) 조보라(30) 조승규(10) 조시영(8) 조은영(1) 조익희(5) 조철희(10) 조하늘(25) 차가혜(12) 최서은(16) 최선영(30) 최성훈(6) 최소영(4) 최우석(50) 한수정(2) 허소영(1) 공군 제 11전투비행단(150) 공군 제 18전투비행단(832) 공주고등학교 3학년(16) 대구환경공단(165) 동국제약주식회사(95) 동양이엔피(주)(26) 드림팩토리(13) 뮤지컬 카디리아저씨(930) 삼성SDS(73) 서울지방병무청(144) 양산시시설관리공단(21) 영진전문대 컴퓨터응용계열 YMCC 동아리(46) 인제대학교(80) 제 5691부대 통신중대(23) 제 5713부대 164중대(38) 큐병원(127) 클럽서비스(884) 평택경찰서(87) 포항공과대학교(100)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75)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34) 한양대 재학생 홍보대사(14) 한전 서울지역본부(52) EXO첸(10) HJ컬처(700) KB국민카드(100) SK브로드밴드 수도권마케팅본부&수도권NW본부(35)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협 : 029-01-176943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KCLF 희망소식

꽃길로 81-1



11월 15일~18일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리상담 작품전시회가 부산 나눔소아암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치료과정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진행되는 미술, 음악 심리상담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여정을 담아내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나 희망을 전달하는 멋진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열여섯번째 차카게살자



소아암 어린이의 영원한 수호천사 가수 이승환 홍보대사의 16번째 ‘차카게살자’ 콘서트가 지난 10월 열렸습니다.

모든 게스트가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콘서트 수익금 전액과 함께 이승환 홍보대사 개인 후원금까지 모두 아이들의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승환 홍보대사가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 해서 늘 든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환 홍보대사의 수많은 팬분들은 이승환 데뷔 27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도 차카게살자’에 함께 하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에 참여하였습니다.

포스코에너지



9월 21일, 포스코에너지는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만든 1%나눔기금으로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은 2013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와 함께 에어컨이 없는 소아암 어린이 가정에 에어컨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KB국민카드



11월 9일, KB국민카드는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과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자선음악회



11월 14일,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4회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3년부터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92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후원했습니다.

강진고등학교



이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강진고등학교에서는 9월 22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을 기념하는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소아암 어린이

BJ윤마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윤마. 2013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을 시작하였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

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난 11월 재단을 방문하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와 헌혈증을 전달 하였습니다.

참마을어린이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를 진행한 안성 참마을어린이집에서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준환 군, 성악 콩쿠르 상금 기부



대구 협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준환 군은 제 2회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상금 전액을 전달했습니다. 기부

금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늘푸른교육



해부터 소아암 어린이 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늘푸른교육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늘푸른교육에서는 지난

기금전달

구성희, 손세옥, 송민경, 유지은, 장수정, 주하준, 최인선, 숭미술심리상담연구소, 신한금융지주, 야놀자, 유라코퍼레이션, 하이닥트 주식회사, 한코교역, 한마음회, 한울타리회, (주)퍼니스템, SK이노베이션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Block B Bastarz 팬클럽에서 11월 20일, 'Make It Rain' 활동 마무리를 기념하여 앨범을 기부했습니다.
- 'Blessing of October'에서 10월 15일, B.A.P 젤로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B1A4 바로 개인 팬이 9월 5일,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GOT7 박진영, 최영재 팬페이지 'SPIN OFF', 'STAY TUNE'에서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과 앨범을 보내왔습니다.
- EXO LAY 팬페이지 'MUST PLAN'에서 10월 7일, LAY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EXO 찬열&세훈 팬페이지 'Delightful Wind'에서 11월 27일,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 EXO 첸 팬클럽 'Mon Ami CHEN'에서 9월 21일,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GOT7 유겸 팬클럽에서 11월 17일, 스무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유아인갤러리에서 10월 6일, 서른한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배우 송중기 공식팬클럽 '키엘'에서 9월 19일, 서른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 배우 유아인 개인 팬이 10월 6일, 서른한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스릉하는B.A.P'에서 10월 15일, B.A.P 젤로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샤이니 KEY 팬페이지 '키보드'에서 9월 23일,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해피빈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아스트로 팬클럽에서 9월 9일, 컴백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 엽전션 규진 팬클럽에서 11월 21일, 스무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재단에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 여자친구 유주 팬클럽에서 10월 4일, 스무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현혈증과 앨범을 기부했습니다.
- 인피니트 이성종 팬페이지 '디어래빗'에서 9월 3일, 스물네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현혈증을 기부했습니다.
- 백퍼센트 팬클럽에서 9월 21일, 데뷔 4주년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자밀킴 팬클럽에서 9월 1일,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장현승 팬클럽에서 9월 3일,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2016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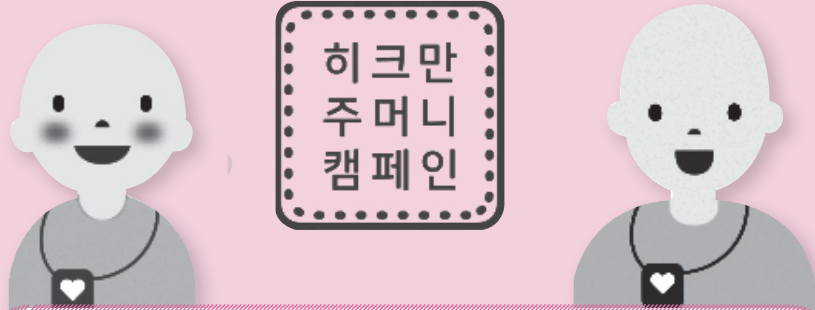
(1)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정확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www.kclf.org에서 확인하세요.

(2) 기부금 영수증,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받으세요!

☞ 2017년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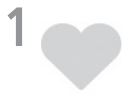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히크만 주머니 캠페인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이유로 히크만카테터를 삽입하고 생활해야 하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손바느질로 만든 히크만 주머니를 선물하는 캠페인입니다.



히크만 주머니 캠페인 참여방법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에 참여합니다.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키트를 신청합니다. (무료배송)



손바느질로 히크만 주머니를 만듭니다. 약 2~3시간 소요됩니다.



응원메시지 카드를 적어 완성된 주머니와 함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보냅니다. (키트 내 회송봉투 사용)



히크만 주머니가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에게 전달됩니다.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키트 구성물품



주머니 천



끈 천



라벨



바늘, 실



옷핀, 고무줄



응원메시지 카드



회송용 봉투

☎ 2017년 2월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히크만 주머니 지원안내



신청자격 : 히크만 카테터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지원수량 : 1인당 2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kclf.org/hickman)

※ 선착순 500명에게 완성된 히크만 주머니를 보내드립니다.

히크만 주머니를 만드는 사람들

2016년 11월부터 1,000명의 후원자가 히크만 주머니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POSTCARD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일년여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현재는 이백 100일이 지났어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내 현실이 되고
발아들이는 일도, 가족간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어요!
독한 항암약이 아이의 혈관으로 들어가고
반복되는 관해 실패와 하늘나라 천사가 되버린
병원 친구... 눈물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저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것은 비수한 처지의
환아 엄마들이 주시는 격려라 용기였어요.
제가 받은 따스한 맘을 다시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지금이
저겐 더없이 감사한 선물입니다.
두려운 맘이 많으시겠지만 다 지나가는 시간이
되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맘 가득 안아드려요.
😊 우리 모두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치유와 돌봄, 소통과 나눔의 공간 나음소아암센터



지난 2008년 5월에 문을 연 서울 나음소아암센터가 11월 25일, 이전 개소 하였습니다. 독립된 전문심리상담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나음소아암센터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음소아암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서적 지원

- 개별 및 집단상담
- 전문심리상담(미술/놀이)
-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정보 지원

- 암 관련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 소아암 교육 프로그램 실시

경제적 지원

- 치료비, 간접치료비
- 재활치료비
- 헌혈증

소통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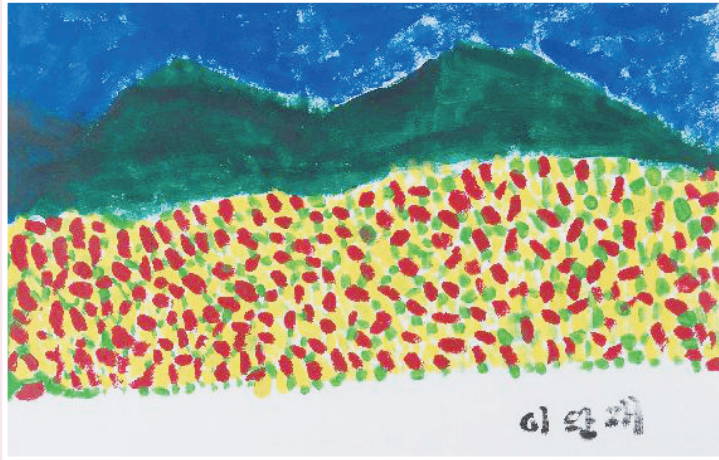
- 가족 및 완치자 네트워크 강화
- 소아암 전문가 교류 촉진
-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나음소아암센터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9-14(성북동1가) ☎ 02-766-7671



마/음/풍/경



이왕재_가족들과 경주 자전거 여행에서 만난 꽃길...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9-14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